

곡성군, 제13기 명품농업대학 블루베리반 현장교육 실시

전문가 양성 위한 현장 중심 교육...총 21회 100시간 지금까지 생육 및 특징·개원준비 교육 등 6회 진행

곡성군이 지난 7일 제13기 곡성명품농업대학 블루베리반 23명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생들은 다양한 품종의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는 선도 농가의 농장을 방문해 품종별 재배현황 및 전정 상태 등을 관찰했다. 각자 농장의 현황과 비교하며 그동안 배운 내용을 복습하며 블루베리 재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또한 생생한 현장 교육을 위해 농업인들의

고충을 공유하면서 생육 중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친환경 블루베리 재배의 중요성과 의의, 블루베리의 시설재배 및 수확과 관리, 유통과 전량, 병해충 관리 등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현장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은 "다양한 현장 교육이 부족한 초보 농업인부터 기존 블루베리 농가까지 아우르는 현장 교육으로 이번 명품농업대학으로 배움의 열정을 다시 느꼈다. 고품질 블루베리 재배와 생산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됐다"라고 말했다.

올해로 제13기를 맞는 곡성명품농업대학은 지난 2월 개강해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과 농가 재배 역량 강화를 통해 블루베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 블루베리반은 총 21회 100시간으로 운영되며, 지금까지 블루베리 생육 및 특징, 개원준비 교육 등 6회의 교육이 진행됐다.

2011년부터 운영된 곡성명품농업대학은 시설원예전문가, 농식품가공, 한우 등 16개 과정을 통해 637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바 있다. 생산에서 가공, 6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농업 전반에 있어 전문농업인력 양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곡성=양해영기자



화순길쌈마을 우수사례 현장 견학지로 눈길

농촌진흥청 '농경문화소득화 모델구축사업' 현장 워크숍 개최

화순군은 지난 4월 6~7일, 화순읍 내평리 길쌈마을에서 농촌진흥청 관계자 및 문화관광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구축 사업 현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관광전문가를 비롯하여 전국 사업 추진 담당자가 방문하여 내평마을 현장체험 교육을 통한 성공사례 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

팅을 진행하였다.

'20 선정된 내평마을은 '21~22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농경문화자원 발굴 및 소득화 사업 연계를 위해 문화길쌈놀이를 핵심사업으로 우물복원 및 길쌈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고, 마을구관장카페·체험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였다.

화순=박순철기자

담양군문화재단,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컨소시엄 선정

담양군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주최하고 전남 문화재단이 주관 기관으로 시행하는 '2023-2025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컨소시엄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교육은 '지역의 과정이다 : 전남 사람책'을 주제로 담양 등 4개 지역(나주, 목포, 해남)이 선정되어 전남 기반 문화인력 양성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문화기획자의 문화 활동 안착을 위해 2025년 12월 말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된다.

특히, 담양은 '생태문화'를 주제로 지역의 생태문화를 탐구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 보며 지속가능한 생태 문화적 전환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지역 문화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담양=박종영기자

나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2개 사업 신청·접수...소비자 신뢰 확보

'나주시장 농특산물 품질인증' 20일·'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나주오' 17일까지

나주시는 지역 먹거리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농특산물 품질인증 및 공동브랜드(나주오) 인증·허가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나주시는 '나주시장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마크) 참여 희망 업체를 오는 20일까지 신청 받는다.

대상은 관내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대표, 제조업체 등이다.

인증 품목은 농산물·과자(당류)·조미료·음료·주류·축산·수산 등 총 7개류, 26개 상품군(274개 품목)이다. 세부 품목 및 신청 제한 등

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달 신청 농업인, 단체·업체 등에 대한 서류 및 현지 심사를 통해 신청 품목에 대한 생산과정 및 환경·임지적 조건, 생산설비, 원료, 상품성·안전성, 생산자 의지 등을 평가한다. 이어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 심의회를 통해 인증상표 사용 허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작년 기준 나주시장 품질인증 허가 업체는 8곳, 63개 품목이다.

나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나주오' 신청 대상은 관내 생산시설을 갖추고 농·특산물 통합마케팅이 가능한 대표조직 및 가공업자다.



대상 품목은 '상표법' 상 상품류 구분 기준인 30류(곡물·발효식품·차), 31류(미가공두류·채소·과일·버섯), 32류(가공음료)이다.

오는 17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먹거리계획과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나주=송준표기자

"공기와 풍광 좋은 구례로 어서들 살러 오세요"

토지면 상죽윗마을 귀촌주민들, 자발적 이웃 초청 행사



구례군은 지난 4월 8일 토지면 문수리 상죽윗마을에서 귀농·귀촌인들이 마을 조성 기념으로 이웃 초청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상죽윗마을로 먼저 귀농·귀촌한 6가구가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하루빨리 구례군으로 귀농·귀촌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마련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행사에 김순호 군수, 이현창 도의원, 군의회 의원, 마을주민, 토지소유자 등 100여 명을 초대해 마을 도로 개통을 축하하고, 도로부지 기부자 및 상죽윗마을 조성 주민 공로자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하고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펼쳤다.

류효숙 토지면장은 "하늘이 내려준 힐링 산촌 문수마을에 하루 빨리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구례=박진호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널 포스코A&C